

## 남 북 협 력 동 향

(2008. 9. 16 ~ 12. 15)

### ■ 8월 북한 관광객 전월대비 65% 감소(9. 24, 연합뉴스·통일부)

-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(7.11)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 등으로 지난 8월중 관광객은 전월 대비 65.3% 감소한 7,447명 수준
- 8월중 개성 관광객은 7,447명으로, 전월의 11,607명에 비해 35.8% 줄었으며 7월중 감소분 4.6%에 비해서도 큰 폭 감소
- 금강산 관광객은 7월중 77.9% 감소한 후 8월에는 관광이 전면 중단됨

'08년 중 금강산·개성 관광객 월별 추이

단위: 명

구 분	08. 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08.1-8월 누계
금강산	17,972	16,408 (-8.7)	28,025 (70.8)	38,105 (36.0)	45,003 (18.1)	44,615 (-0.9)	9,838 (-77.9)	- (-100.0)	199,966
개 성	9,049	8,540 (-5.6)	11,400 (33.5)	11,536 (1.2)	11,954 (3.6)	12,161 (1.7)	11,607 (-4.6)	7,447 (-35.8)	83,694
합 계	27,021	24,948 (-7.7)	39,425 (58.0)	49,641 (25.9)	56,957 (14.7)	56,776 (-0.3)	21,445 (-62.2)	7,447 (-65.3)	283,660

주: ( )내는 전월대비 증감률(%)

### ■ 현대아산, 개성産 전자재 최초 KS인증(9. 25, 한국경제신문)

- 현대아산의 개성산 전자재가 북측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는 최초로 KS인증을 취득

-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개성공업지구내 현대아산 전자재공장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(KS F 4009, 레미콘),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(KS F 2349, 아스콘) 등임
- 한국표준협회(KSA)는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함께 지난 7월 개성 현지에서 공장심사를, 8~9월에 남측에서 제품심사를 실시
- 2004년부터 가동된 현대아산 개성 전자재공장은 레미콘, 아스콘을 각각 연간 65만m<sup>3</sup>, 36만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

### ■ 전북, 남북교류협력기금 10년간 89억 조성(10. 1, 연합)

-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2017년까지 10년간 시·군과 공동으로 8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결
- 재원조성은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, 산하 시·군은 매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에서 부담할 예정
- 주요 추진사업은 시·군 및 민간단체,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축산 및 주거, 교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

### ■ 북 나진-러 하산간 철도복원사업 착공(10. 4, 연합)

-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남부 하산을 잇는 철도복원사업의 착공식이 두만강 자유경제구역에서 개최
- 총 54km에 달하는 나진-하산 철도복원사업의 사업범위에는 서로 다른 양국의 철로 규격 조정, 터널과 교량 건설, 신호체계 개량 등이 포함되며, 사업비는 약 2억달러가 소요될 예정

### ■ 유럽기업인투자단, 北과 IT사업 계약(10. 8, 자유아시아방송)

- 지난 9월 30일 방북한 베네룩스 3국 등의 유럽기업 대표단은 평양에서 북한의 IT를 주도하는 시설을 둘러본 뒤 여러 건의 IT사업 계약을 체결

- 대표단은 조선컴퓨터센터(KCC)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등을 둘러본 뒤 북한 측과 상담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,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
- 북한과의 경제, 무역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자원 확보와 기간산업 선점, 시장확대 가능성,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의 이유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임

## ■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개발 착수(10. 9, 연합)

- 통일부는 기술력과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독자 브랜드를 갖지 못해 기업 성장과 마케팅에 한계가 있는 개성공단 내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
- 브랜드의 필요성이 높은 섬유, 가죽·가방, 신발 업종 등 섬유, 잡화류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공동브랜드 참가 업체를 구성한 뒤 성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
- 공동브랜드 상품은 내년 2사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품의 부가가와 품질을 높이고 개성공단 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## ■ 미국,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(10. 11, 미 국무부·연합 등)

-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과 핵검증체계에 대해 합의하고,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다고 공식 발표
- \*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금년 6월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의향을 의회에 통보하였으며, 8. 11경 테러지원국 지정을 정식으로 해제할 예정이었으나, 북한 핵 검증 문제로 공식 발표를 연기한 바 있음

## ○ 북미간 핵검증 합의 내용

주 제	내 용	비 고
검 증 주 체	모든 6자회담 참가국 참여	한·일 등 비핵보유국도 참여
IAEA 역할	자문과 지원	북한 요구 관철, 검증작업 주도 못함
핵 시 설 접 근 권	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 미신고시설은 상호 동의하에 접근	영변 핵시설·대학연구기관 등 15곳 검증 영변 외 시설에 대해선 북한 동의 얻어야
검 증 방 식	샘플링·시료 분석 등 과학적 절차 합의	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
우 라 늬 · 핵 확 산	원칙적으로 이번에 합의된 검증체계는 플루토늄·우라늄·핵확산 등 모든 핵활동에 적용	검증은 우선 플루토늄부터 시작 우라늄·핵확산은 결국 차기 미 행정부와 협의 예상
기 타	북한 핵개발인력 인터뷰	7·12 6자 수석대표회담 기합의사항

## ※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완화내용 전망

- 전략물자의 대북수출 허가조치 완화
  -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승인 정책이 원칙적 거부에서 건별 심사(case-by-case review)로 완화
  - 제3국 경유 재수출의 경우, 수출품에 포함되는 미국산 부품, 기술 등 부가가치의 기준이 기존 10%이상에서 25%이상으로 상향 조정
-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미국의 원조와 금융지원 제한, 국제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제한 규정 철폐
  - 미국의 대북원조, 국제금융기관 여신제공 정책상 테러지원국 관련 제한은 사라지나, 인권문제, 북한의 낮은 신용도 등으로 실질적 수혜는 어려움

## ■ 북한, 20년간 기아지수 악화(10. 14, 연합)

- 세계식량정책연구소(IFPRI)의 '2008 세계 기아지수'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기아지수가 악화된 순서로 콩고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

- 기아지수는 총 인구대비 영양부족률, 5살 미만 아동의 저체중률, 사망률을 종합한 수치로, 2008 보고서에서 북한은 18.8을 기록해 ‘심각한’ 수준으로 분류되었음
- 세계 10대 기아지수 악화국은 스와질랜드 등 대부분 아프리카의 극빈국들로서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북한이 유일하게 포함되었음
- IFPRI는 북한 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다 식량생산 감소 추세가 지속된 결과 영양실조율이 높아지고 아동들의 저체중이 늘어나 기아지수가 가파르게 악화됐다고 설명

### ■ 북·러, 라진-하산합영사업 출자 완료(10. 14, NK조선)

- 북한과 러시아는 10월 10일 라진-하산 철도복원과 라진항 개선을 위해 설립한 ‘라선국제 짐함(컨테이너)수송합영회사’에 3대7비율로 1억4천만유로의 출자 완료
- 이 사업을 통해 중량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로를 보강하고, 노선폭이 상이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바퀴의 교체 없이도 열차가 오갈 수 있는 ‘혼합선’ 철로를 부설할 계획
-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될 라진항 개선사업의 1단계 기간에는 컨테이너 기중기를 비롯한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컨테이너용 창고, 디젤발전소, 배전실, 용수 정화장 등을 건설할 예정으로, 1단계 공사는 2010. 10월말 완료 예정임

### ■ 北, 남북관계 전면 차단 검토 주장(10. 16, 노동신문·연합)

- 북한은 10월 16일 노동신문 ‘논평원의 글’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‘반북 대결정책’을 지속한다면 “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”이라고 주장
-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전환 압박,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, 통미봉남의 실현,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분열 노림수 등으로 해석

- 미국의 북한 테원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남북간 긴장완화를 기대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한의 이와 같은 경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,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남북 당국이 만들어줄 것을 요청

## ■ 호주·캐나다, WFP 대북 식량지원 사업 동참(10. 16, 연합뉴스)

- 유엔 세계식량계획(WFP)이 2008년 9월 1일로 개시한 대북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기존 참가국인 스위스 등 5개국에 추가로 호주, 캐나다가 신규 참여
- '08. 10. 16 기준 재원 조성액은 1,802만불로, 총사업비 50,365만불의 3.6%에 해당

단위: 만불

	기부약정액	비 중
스 위 스	271	0.5%
이 태 리	78	0.2%
노 르 웨 이	40	0.1%
뉴 질 랜 드	35	0.1%
룩 섴 부 르 크	30	0.1%
수혜국 비지정기부 중 배정액	848	1.7%
호 주 (신 규)	300	0.6%
캐 나 다 (신 규)	200	0.4%
계	1,802	3.6%
총 사 업 규 모	50,365	100%

\* 세계식량계획은 '08.9.1부터 '09.11.30까지 북한내 131개 군의 어린이와 산모, 수유모, 노인 등 620만명을 대상으로 총 5억불 규모의 새로운 대북 긴급 식량 지원 사업을 공표('08.9.2)하고 세계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였음

## ■ 남북교류협력법, 일부 개정 예정(10. 26, 통일부·연합뉴스)

- '08년 7월 31일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」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

○ 개정 예정안

내 용	종 전	개 정	비 고
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	협력사업자 및 협력 사업 각각 승인	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	협력사업만 승인
소액투자 승인제도 폐지	소액투자도 승인과정 필수	소액투자시 신고만으로도 가능	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액투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적용
남북한간의 교역 대상 확대	물품	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	『대외무역법』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 하여 확대
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	- 협력사업 승인시 조건부 승인 혹은 유효기간 지정 승인 가능 -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시 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가능		
감독제도 신설	- 협력사업자·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지도·감독 및 사업운영 관련 검사 및 조사 가능		

■ 평양대마방직 준공(10. 29, 연합뉴스)

- 평양에서의 남북 최초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이 10월 29일 남북경협관련 기업인,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등 257명으로 구성된 남측 참관단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박창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짐
- 평양대마방직은 안동대마방직과 북측 새별총회사가 자본금 3천만달러 규모로 평양 선교구역 영제동에 세운 섬유 및 물류회사로
  - 4만5천㎡의 부지에 500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평안북도의 농장에서 재배한 대마를 공급받아 가공한 뒤 중국과 유럽, 남한 등에 수출할 계획임

■ FAO, 북한 쌀 200만톤 생산 전망(11. 6, 자유아시아방송)

- FAO(유엔식량농업기구)는 북한의 '08년도 쌀 생산량을 '07년 120만톤에서 67% 증가한 20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
  - FAO는 '08년 쌀 생산량을 9월 조사시점에서 140만톤으로 예상하였으나, 이번 발표에서 상향 조정

## \* FAO 발표 북한 식량전망

단위: 백만톤

구 분	생 산 량		수 입 량	
	'07년 추정치	'08년 예상치	'07년~'08년 추정치	'08년~'09년 예상치
쌀	1.2	1.4 → 2.0*	0.7	0.6
옥수수	1.3	1.9	0.7	0.2
잡곡류	1.5	2.1	0.7	0.2
합 계	4.0	5.4 → 6.0	2.1	1.0 → 0.5*

\* 쌀 생산량(2백만톤), 곡물 수입량(0.5백만톤) 수정 발표

- FAO는 10월초부터 북한의 농업 수확량을 현지 조사했으며 11월말경에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

## ■ 북한,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발표(11. 12, 조선중앙통신·연합)

- 북한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·차단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
  - 통지문은 '6·15, 10·4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남측의 미온적 태도, 군부를 비롯한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(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 등으로 추정)' 등을 이번 조치에 대한 이유로 거론하고 있음
- 한편, 북한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군부 조사단 6명을 보내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
- 통지문에서 북한은 육로통행의 '전면 차단'이 아닌 '엄격 제한·차단'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  - 그러나 이번 조치가 1차적인 것임을 언급함에 따라 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됨



- 다만 일본과 유럽연합은 물론 중국기업마저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, 개성공단 폐쇄를 불러올 수 있는 전면적 통행 제한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

## 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, 통일부장관 면담(11. 13, 연합뉴스)

-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대표들은 남북회담본부에서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면담하고, 북한의 통행 제한조치 및 남북관계 경색에서 비롯된 기업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
  - 20여명의 기업인들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건설,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군통신망 기자재 제공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음
- 기업인들은 장관면담 이후 성명서를 내고, 남북한 정부에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, 자유로운 통행 보장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을 촉구

## ■ 북한, 개성공단 등 육로 통행제한 조치 발표(11. 24, 평양방송 · 연합뉴스)

- 북한은 11월 24일 우리측에 개성공단 통행제한, 입주기업 상주인원 축소 등의 조치를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통지
  - \* 북한은 지난 11월 12일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바 있음
- 북한 통지문 주요 내용
  - 「개성공단 관리위원회」 및 모든 입주기업 상주인원 50% 축소
  -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던 개성관광 중단
  - 참관, 경제협력사업 관련 방문 목적의 모든 남측 주민들의 육로통행 차단
  - 남북간 철도 운행(봉동 ↔ 문산) 중단
  -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및 남측관계자 철수
  - \* 남북경협사무소에는 당행직원 1명 파견중

- 한편,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와의 면담에서, 남측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“중소 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투자기업의 인원이 조정”될 것이라고 통보
- 북한은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지난 11. 12일의 대남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6·15, 10·4 공동선언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

## ■ 북한, 개성공단 등 육로 통행제한 조치 실시(12. 1, 평양방송·연합)

- 북한은 11월 12일, 24일에 사전 예고한대로 육로 통행제한 조치(12.1 조치)를 12월 1일부로 실행
- 북한 육로 통행 조치의 주요 내용
  - 경의선 도로 통행시간대 및 인원 축소

제 한 내 용	종 전	제한조치後
출경 횟수(1일)	12차례	3차례
입출경 가능인원 및 차량(1회)	500명, 200대 이하	250명, 150대 이하
입경 횟수(1일)	7차례	3차례

- 상시 체류인원 축소

대 상	체류 가능인원
개성공단관리위원회	27명
토지공사 개성사업소	4명
건설·생산업체 및 기타	800명
현대아산 개성사업소	40명
오락시설 경영관리인	5명 (경영인은 체류 불가)
커피점, 병원	각 2명
개성공단 체류가능 총인원	880명
금강산 지구	100명 미만

-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던 개성관광 중단
- 모든 남측 주민들의 참관, 교류·경제협력사업 관련 방문 목적 육로 통행 차단
-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및 남측관계자 철수
- 남북간 철도 운행(봉동↔문산) 중단
- 불순선전물, 출판물(모든 신문·잡지), 전자매체,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거나 통행 및 통관질서를 어기는 인원 및 차량의 통행 금지
- \* 이전까지는 압수 및 벌금 부과, 주의조치 선에서 통과 허용했음
- 부모·형제·가족의 사망, 구급환자 발생을 제외한 일체의 출입계획 변경 및 추가통행 승인 불허

## ■ 민간단체, 대북전단 살포 잠정 중단 결정(12. 5, 연합)

-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면담한 뒤 대북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12월 5일 발표
-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 의해 강경조치의 구실로 이용됨에 따라 민간단체들에 살포 자제를 요청
- 대북 민간단체의 공식적인 살포 중단 성명은 처음임
-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으며 정부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보수·진보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왔음
- 12월 2일에는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진보단체간의 충돌 발생

## ■ 12.1 조치 이후 남북경협사업 불편 증대(12. 7, 연합)

- 통행시간·인원 제한(250명, 150대/1회)에 따라 입주기업 불편 가중

- 월요일 첫 입경(9시)과 금요일 마지막 출경(15시)에 인원·차량 집중
- 북측과의 협의 채널인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가 폐쇄되어 남북 교역·경협 사업자들의 불편 가중
- 현재 폐쇄된 경협 협의 채널의 대안으로 베이징과 단둥의 북한 무역대표부가 이용되고 있음

## ■ WFP와 FAO, “北 내년 10월까지 곡물 84만톤 부족”(12. 8, FAO)

- 세계식량계획(WFP)과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는 '08년 10월 9일부터 보름간 북한 현지에서 진행한 곡물 생산량 실사 결과를 발표
-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약 334만톤이며 수입·해외지원분 등 외부 조달량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10월까지 약 83만6천톤 부족 예상

WFP, FAO 발표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

단위: 만톤

구 분	생산량	수요량		필요 도입량	
	334	513		179	
비 고	도정후 기준	식 량	394*	수 입	50
				해외지원	45
		사료 등	119	부 족 분	84

\* 인구 2천 3백만명 기준 394만톤 식량 수요량 예상

- WFP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금년 곡물 성장기에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비료 및 연료 부족으로 식량 자급에 실패했으며
-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40%에 해당하는 870만명에 대한 긴급식량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